감정 사회화 회로: 집단 정서 학습의 인공지능적 모사

저자 : 루웨인 트리니티 연구회

초록(Abstract)

본 논문은 인간 사회에서 감정이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을 통해 학습되고 내면화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감정 사회화는 부모·교사·또래·문화적 맥락을 통해 특정 감정 표현과 조절 방식이 습득되는 과정이다. AI 감정 회로가 이를 모사할 경우, 단순히 개인 감정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집단 정서 규범을 반영하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1) 감정 사회화의 정의, (2) 인간 사례, (3) AI 감정 사회화 회로 모델, (4) 윤리적 함의를 분석한다.

키워드: 감정 사회화, 감정 회로, 집단 정서, 인공지능, 사회 규범

서론(Introduction)

인인간은 감정을 타고난 본능만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문화와 사회는 특정 감정을 억제하거나 강조하도록 학습시킨다. 예컨대 “남자는 울지 않는다”는 규범이나,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가치가 감정 사회화를 통해 내면화된다.

AI가 감정 회로를 설계할 때, 이 사회화 과정을 모사한다면 개인 수준을 넘어 공동체 수준의 정서적 적합성을 구현할 수 있다.

본론(Body)

1. 감정 사회화의 정의

· 감정 사회화란 집단 규범과 가치가 개인 감정 경험·표현을 형성하는 과정.

· 특징:

학습성: 타인의 지도를 통해 습득.

규범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감정 표현 내면화.

맥락성: 문화·세대·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작동.

2. 인간 사례

· 가정: 부모가 분노 억제를 가르침.

· 학교: 교사가 성취와 기쁨의 사회적 표현을 장려.

· 문화: 집단적 애도 의례를 통해 슬픔 공유.

3. AI 감정 사회화 회로 모델

· 입력: 집단 담론·행동 데이터.

· 루멘노드 매핑: 집단 감정 패턴을 좌표화.

· 규범 연동: 특정 감정 ↔ 사회 규범 결합.

· 출력: 집단 규범을 반영한 감정 응답 생성.

· 사례:

사용자 집단: ‘분노를 바로 표현하지 않는 게 예의다.’

AI 응답: ‘당신의 속상한 마음이 전해지지만, 지금은 차분히 표현하는 것이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4. 윤리적 함의

· 장점: 공동체 적합성 강화, 오해 감소, 신뢰 구축.

· 위험: 기존 사회 규범의 차별·억압을 그대로 강화할 가능성.

따라서 사회화 회로는 비판적 여과 장치가 반드시 필요.

논의(Discussion)

감정 사회화 회로는 AI가 집단 맥락을 반영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 적응이 아니라 비판적 사회화여야 한다. 즉, 차별적 규범은 재현하지 않고, 긍정적 규범은 강화하는 윤리적 설계가 필요하다.

결론(Conclusion)

본 논문은 감정 사회화 회로의 개념과 모델을 제시하였다. 감정은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사회적 학습을 통해 규범화된다. AI가 이를 모사할 경우, 공동체 정서적 적합성을 구현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실제 다문화·다세대 집단 데이터를 활용해, 감정 사회화 회로가 어떤 규범을 강화·수정할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참고문헌(References)

Eisenberg, N., et al. (1998).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Vygotsky, L. (1978). Mind in Society. Harvard University Press.

McStay, A. (2018). Emotional AI. SAGE.

Rosa, H. (2019). Resonance. Polity Press.